

# 도덕 · 윤리

성명 :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11 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도덕 원리를 2가지 서술할 것.
- 밑줄 친 ㉣을 활용하여 밑줄 친 ㉤의 이유를 서술할 것.

4. 갑은 도덕 사회학자, 을은 도덕 심리학자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p>도덕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을 도덕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사회화는 규율을 존중하고 집단에 헌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성에 기초해서 행위의 이유를 분명하고 완전하게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면, 세계를 적절하게 표상하는 체계가 우리 내부에 형성되므로 세계는 더 이상 우리 밖의 존재가 아니다. 이제 도덕 질서는 우리의 의식에 분명하고 확실한 관념 체계로 표상된다. 우리는 도덕 규칙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동의하고 원함으로써 행위의 ( ㉠ )을/를 확보하게 된다.</p>
을	<p>도덕성은 단순히 특정한 문화의 규범과 가치를 직접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성은 옳고 그름 및 정의(justice)에 대한 추론 능력과 동일하다. 도덕성의 발달은 인지적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다. 도덕성의 발달에는 도덕 규칙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전도덕의 단계로부터 도덕 실재론 단계, 도덕 상대주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뚜렷한 방향이 존재한다.</p>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을이 설명하는 도덕성 발달에서 괄호 안의 ㉠이 나타나는 단계를 찾아 쓰고, 그 단계에서 나타나는 ‘도덕 판단’ 및 ‘정의(justice) 판단’의 특징을 각각 1가지씩 순서대로 서술할 것.

5. 갑, 을은 도덕 심리학자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p>도덕성 4구성요소 모델에서 도덕 행동은 네 가지 심리적 과정을 수반한다. 그중 도덕적 민감성은 어떤 행동이 가능하고, 그러한 행동에 의해 누가 그리고 무엇이 영향을 받으며, 그 행동에 참여한 일행이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다. 이처럼 상황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능한 다양한 행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 ㉠ )와/과 ( ㉡ )의 상호 연결이 필요하다. 상황적 정보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능력은 공감이다.</p>
을	<p>공감적 ( ㉠ )은/는 ( ㉡ ) 발달에 의해 중재된다. 신생아와 영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 반응을 자신의 고통으로 경험한다. 유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 ㉠ ) 반응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위로받았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아동은 다른 사람의 주관적 경험을 더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에 더 적절히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은 ( ㉡ ) 능력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 더 다양한 대상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 대상이 속해 있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볼 수 있다.</p>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발달 단계를 쓰고, 그 단계로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추론 능력을 서술할 것.

6. 갑, 을은 동양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는 사람[知者]은 백성에게 법령을 내리지 않으며 그들에게 법령을 내리는 자[言者]는 아는 사람이 아니다. 지식의 구멍을 막고 욕망의 문을 닫으며 예리한 것을 무디게 하고 그 얽힌 것을 풀어낸다. 빛을 머금고 티끌로 얼룩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것을 ( ㉠ ) (이)라 한다.</li> <li>○ 천하 사람들은 모두 나의 도(道)는 광대[大]하여 어떤 사물과도 같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은 광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물과도 같지 아니하다. 만일 그것이 사물과 같다고 한다면 일찍이 자질구레해졌을 것이다. 나에게서는 ㉡ 세 가지 보물[三寶]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간직하여 보존하고 있다.</li> </ul>
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것도 하나의 옳고 그름이며 이것도 하나의 옳고 그름이다. 내가 당신과 변론을 하는데, 당신이 나를 이기고 내가 당신에게 진다면 당신은 진실로 옳고 나는 과연 그른 것인가? 내가 당신을 이기고 당신이 나에게 진다면 나는 진실로 옳고 당신은 진실로 그른 것인가? 아니면 그중 한 사람은 옳고 다른 한 사람은 그른 것인가? 또는 그 둘이 모두 옳거나 모두 그른 것인가?</li> <li>○ 원숭이들은 도토리(의) 수나 그 실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화를 내다가 기뻐한다. 따라서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따르고 그것에 맡겨야 한다[因是].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옳고 그름의 논변을 그만두고, 하늘의 균형[天鈞]에 맡기어 조화시킨다. 이것을 ( ㉢ ) (이)라 한다.</li> </ul>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내용을 2가지 서술할 것.

7. 갑, 을은 한국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誠)이란 하늘의 실리(實理)이며 마음의 본체인데,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사사(私邪)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경(敬)을 주로 삼아 사사를 모두 없애면 본체는 온전하게 된다. 경은 힘을 쓰는 요령이며 성은 힘을 거두어들이는 경지이니, 경으로 말미암아 성에 이른다.</li> <li>○ 발(發)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게 하는 근거[所以]는 이(理)이다. 심(心)이 발할 때 정리(正理)에서 곧게 나와서, 기가 작용하지 않으면 ( ㉠ )이니, 칠정(七情) 중의 선(善)의 일면이다. 반면에 심이 발할 때 기가 작용하면 ( ㉡ )이니, 칠정의 선과 악(惡)을 겸한 것이다.</li> </ul>
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敬)이란 형이상(形而上)과 형이하(形而下)에 모두 통하는 것이니, 공부를 시작하고 효과를 거두어들이기에 있어서 마땅히 이에 종사하여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자(朱子)의 말도 이와 같고, 이 십도(十圖)도 모두 경을 위주로 한다.</li> <li>○ 이미 칠정(七情)과 사단(四端)이라 하고 또 ( ㉢ )와/과 ( ㉣ ) (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 )은/는 칠정이고, ( ㉣ )은/는 사단이니, 두 개의 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li> </ul>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 ㉣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을의 입장을 서술 할 것(단,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할 것).

8. 갑, 을은 서양 현대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달리 말하면 ㉠주체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원하는 그대로다. 이는 곧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삶의 가치란 개인이 삶에 부여한 의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 (중략) ...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럼 인간은 자기 이상의 것을 행하며 그러한 초월의 한복판에 있다. 인간의 우주, 즉 인간 주체성의 우주 이상의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없다. 인간이 자신 속에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의 우주 속에 처해 있다는 의미로서 주체성과의 관계, 그것을 우리는 ‘실존적 (㉡)’(이)라고 부른다.
을	진리는 ㉠주체성이다. ... (중략) ...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특별한 의미로 이해해야만 한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상의 그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죽음은 질병의 최후이긴 하지만, 죽음 그 자체는 결코 종국적인 것이 아니다. 만약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최후가 죽음이고 또한 죽음이 종국적인 것과 같은 그러한 병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병이야말로 분명하게 말해 (㉡)이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은 신 앞에 홀로 서서 그토록 큰 노력으로 그토록 큰 책임을 지면서 특정한 개별자가 되는 것이다.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의 차이점을 ‘신’, ‘자기 자신’을 활용하여 2가지 서술할 것.

9. 갑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 을은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음은 서로 다른 행위나 기술에 있어서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의술에서는 건강이고, 군사학에서는 승리이며, 건축에서는 집이며, 다른 경우에는 그 밖의 다른 것이다. 간단히 말해 모든 행위와 선택에서 그 (㉠)이/가 좋음이다. 사람들은 모두 (㉠)을/를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의 (㉠)이/가 있다면 그것이 실현되어야 할 좋음이다.</li> <li>○ 인간의 어떤 기능도 유덕한 활동들만큼 영속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유덕한 활동들 가운데 가장 존경스러운 것은 더 오래 지속된다. 더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 보다는도 그런 활동에 계속 전념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덕한 활동은 망각의 늪에 빠지지 않으며, 행복한 사람은 평생토록 행복할 것이다.</li> </ul>
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은 원리를 (㉡)와/과 동일시함으로써 우리의 이론을 부도덕한 이론이라고 부당하게 낙인찍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은/는 옳은 것과 대립되는 의미로서, 이를테면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처럼, 행위자 본인의 특정 이익을 뜻한다. 이보다 나은 의미를 굳이 찾자면 (㉡)은/는 눈앞의 일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 대신 훨씬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뜻한다.</li> <li>○ 행복이란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것을 뜻한다. 쾌락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성질을 빼고 나면 덕을 갈망하거나 추구해야 할 원초적인 이유는 없다. 물론 덕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과 차이가 난다. 이러한 속된 가치에 집착하는 사람은 때로 그가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해로운 존재가 되는 반면, 사심 없이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다시없이 귀한 존재가 된다.</li> </ul>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각각 순서대로 서술할 것.

10. 다음은 서양 고대 사회 사상가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공화국은 인민의 것이다. 그러나 인민은 아무렇게나 모인 일군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 ㉠ )와/과 ( ㉡ )을/를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인간이 결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들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것, 마치 군집성 같은 것 때문이다. 사실상 인간은 홀로 떠도는 종류가 아니라 국가 속에서 사는 것이 자연에 의해서 강제되도록 태어난 것이다.
- 세 가지의 원초적인 국가의 종류보다 국가의 세 양식이 평균화되고 적절히 절제된 것이 가장 앞설 것이다. ㉢ 이 국가 체제에서는 어떤 큰 동등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롭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왕에게서는 전제자가 나오고, 귀족들에게서는 봉당이, 인민에게서는 소요와 혼란이 생기는 것처럼 원초적인 정치체제는 쉽게 정반대의 결합 속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이 추구하는 정부 형태의 명칭과 특징을 서술할 것.

11. 다음은 현대 사회 사상가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의사소통행위는 화자의 타당성 주장에 대해 청자가 ( ㉠ ) (으)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특히 문제가 되는 타당성 주장을 검증하는 과정에 상호 주관적으로 개입하는 일상적 관행을 담론이라고 부른다. 담론 윤리학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보편적 타당성이 획득되는 과정을 다룬다. 담론에 참가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화 참가자들이 서로 이해 가능한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 세 가지의 타당성 주장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과정이 공론장과 의회를 거쳐 법 제정의 원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 ㉢ ) 민주주의 정치의 작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과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내용을 2가지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